

## 先進韓國을 위한 圖書館政策

鄭 駟 謨  
中央大學校教授

여러분 오늘 第16回圖書館大會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光復以後 현재까지 우리 圖書館人들은 우리나라의 圖書館發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고 한편 10餘年前부터는 圖書館을 발전시키는 것이 전반적인 文化發展이나 産業發展이나 國家發展을 위한 첩경이라는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社會輿論에 호소하고 圖書館政策을 樹立할 것을 政府當局에 건의했으며, 심지어는 몇 차례의 國際會議를 우리나라에 誘致하여 外國人의 입을 빌어서까지 이를 환기시켜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圖書館發展을 위한 政策樹立의 기초가 될 圖書館法을 改定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항상 外面당해 왔습니다. 그 理由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우선 더 時急했던 것이 國防問題와 經濟開發問題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社會事情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國防産業도 거의 그 기초가 樹立되었고, 經濟開發産業도 거의 그 기초가 세워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高度의 技術産業 또는 知識産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數個月前 韓國科學技術研究所에서 發表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産業技術은 그 대부분이 이미 10餘年이나 落後된 技術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商品이 國際競爭에 있어서 限界點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今年 年初에 朴大統領께서는 각 企業體들은 研究施設을 갖추고 産業技術을 開發하게 하라는 敎示를 發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企業體들은 지금까지도 研究施設을 갖추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政府에서는 이미 10餘年前에 이러한 상황을 豫見하여 韓國科學技術研究所, 韓國經濟開發研究所, 國防科學研究所, 大德에 科學技術研究園地 등을 設置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人文科學分野의 韓國精神開發研究院을 設置했습니다. 그리고 곧 政府에서는 社會科學

分野의 研究施設을 設置할 것으로 豫見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政府의 高位層에서는 科學技術情報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특정한 部署의 官僚들로 하여금 數年前부터 科學技術情報를 효과적으로 活用할 수 있는 方案을 研究하도록 指示하여 이를 1年餘에 걸쳐서 研究한 결과 科學技術情報의 效用問題는 단순히 科學技術分野에만 限定된 問題가 아니고 人文社會科學分野까지의 전반적인 圖書館問題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다시 圖書館問題를 研究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의 社會事情도 많이 달라졌고 晩時之歎의 感은 있지만 천만 다행히도 이제야 政府의 高位層에서 圖書館을 발전시키는 것이 産業의 發展이나 文化의 發展이나 國家發展의 첩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政府에서는 圖書館發展計劃을 樹立하는 作業과 圖書館法改定案을 立案하는 作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政府에서 추진하고 있는 圖書館發展計劃과 圖書館法改定에 있어서 參考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本人個人的 몇가지 見解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1. 學術圖書館問題

우선 우리나라에 있어서 現實的으로 당면한 時急한 問題를 우선순위로 말한다면, 첫째로는 高度의 技術의 産業을 발전시키기 위한 科學技術情報의 效果의인 活用方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問題는 우선 이상에서 말한 바 있는 政府主導의 科學技術研究機關과 각 企業體의 研究施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具備條件이 圖書館의인 施設로서 각 研究機關은 關係分野의 學術的인 主要 文獻을 國內 및 國外에서 빠짐없이 迅速하고 正確하게 蒐集하여, 이를 利用하기에 편리하도록 體系的으로 組織化해야 할 것입니다. 研究施設이 아무리 훌륭하고 研究者들이 아무리 高度의 能力을 가지고 있다할 지라도 世界各國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研究되고 있는 最新情報를 우선 알고 이를 기초로하여 다시 또 새로

은 研究를 하지 않으면 그 研究는 落後性을 면할 수 없으며 그 研究에 소요된 모든 經費와 努力과 時間이 낭비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科學技術分野의 研究機關 뿐만 아니라 人文科學이나 社會科學分野의 研究機關이나 大學圖書館을 포함해서 모든 學術的인 圖書館이 모두 공통하는 問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研究機關이나 圖書館들이 제각기 國內外的 필요한 文獻을 罔羅의으로 그리고 體系의으로 蒐集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며, 또한 그것이 可能하다 할지라도 非經濟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政府는 이러한 研機機關이나 圖書館들을 각 主題別로 群別하고 또한 地域別로 考慮해서 각 主要圖書館으로 하여금 主要한 外國의 技術的인 文獻을 각 國家別로 또는 主題別로 분담하여 蒐集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目錄을 作成하여 隨時로 國立中央圖書館에 보내도록 하고,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이를 모두 綜合編成하여 冊子로 된 綜合目錄을 作成하여 이를 主要한 研究機關과 圖書館에 備置하게 함으로서 研究者들이 이 綜合目錄을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文獻을 索出하여 利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海外的 學術文獻을 蒐集하는데 있어서는 그 迅速한 蒐集을 위해 文獻情報專門家들을 관계된 外國에 파견하여 現場에서 出版되는 대로 蒐集하여 航空便으로 보내도록 해야 하며, 더욱 迅速한 情報入手를 위해서는 世界科學技術情報流通體制(Unissist)에 적극 협력하여 Computer에 의한 情報交流를 試圖해야 할 것입니다.

### 2. 教育圖書館問題

둘째로는 國民學校에서부터 中高等學校와 專門學校의 圖書館에 대해서는 現行的 圖書館法이나 圖書館法施行令등에도 다른 分野에 비하면 비교적 잘 規定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圖書館이 몇 개 館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政府에서는 이를 철저히 施行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學生들의 敎養과 敎科에 알맞도록 良書를 選定하여 藏書의 質과 量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圖書館의 施設基準을 規制하여 이를 施行하도록 해야 하며, 學校圖書館의 運營責任을 맡을 正規의 司書敎師를 養成하여 各급 學校圖書館에 配置해야 할 것입니다.

### 3. 公共圖書館問題

셋째로 우리나라 國公私立의 公共圖書館은 현재 107개 館인데 가장 소외되어 왔던 分野라고 생각됩니다. 현존의 公共圖書館은 극히 몇개 館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그 建物만이 있을 뿐 圖書館의 運營費도 資料購入豫算도 거의 없기 때문에 施設도 不備하고 藏書도 너무나 貧弱하고 正規의 司書資格을 갖춘 專門人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公共圖書館은

각 地域의 綜合的인 文化센터로써 成人敎育과 地域住民의 永續的인 自由敎育 각종 文化活動을 主導하며 靑少年들의 善導 機能과 社會問題의 善導機能을 가지는 현대 社會에 있어서는 不可缺한 機關인데 政府는 이에 대한 政策이 가장 貧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公共圖書館은 그수에 있어서도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현재 公共圖書館은 市·道單位까지는 모두 設置되었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의 經濟事情을 고려해서 적어도 7年以內에는 都市의 各 區單位와 地方의 各 郡單位까지는 반드시 公共圖書館을 設置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4年以後 7年以內에는 各 都市의 洞單位와 地方의 邑 또는 面單位까지 公共圖書館 또는 그 分館을 設置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公共圖書館은 國庫와 地方稅에 의해서 그 運營費가 충분히 支給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수의 資格을 갖춘 專門司書를 채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4. 國家中央圖書館問題

數年前부터 圖書館界에서는 현재의 國立中央圖書館과 國會圖書館을 統合하여 國會圖書館이 國立中央圖書館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意見과 한편은 현재대로 그대로 두되 國立中央圖書館의 기능을 더 強化해야 한다는 두가지 意見이 있었습니다. 本人의 意見은 이 後者に 속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國立中央圖書館은 모든 公共圖書館과의 行政的인 연결성을 가지며 기타의 각종 圖書館과도 유대를 가지는 동시에 직접적으로는 政府 및 對民奉仕에 이바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國外에 대해서는 國家의 代表圖書館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國會圖書館이 國家中央圖書館이 된다면, 國會圖書館은 立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公共圖書館과의 行政的인 연결성을 가질 수 없으며 行政府에 대한 參考機能을 가지기 곤란하며, 行政府의 指示나 監査를 받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國會圖書館이 地域的으로 위진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一般大衆의 利用이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國會圖書館이 國家中央圖書館이 되자면, 그것은 다시 首都의 中央地에 移館되어야 하며 그 運營權도 行政府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國會圖書館이 國家中央圖書館이 되어야 한다는 意見은 다만 文教部傘下에 있는 國立中央圖書館보다 豫算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利點과 美國을 비롯한 몇개 국이 議會圖書館이 그 國家中央圖書館의 기능을 가진다는 理由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事情이 다른 것입니다.

(4面に 繼續)

혈연적 求心人物을 내세워 만들어야 그 지역사회에 행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증하려던 그의 詩文集을 刊行하여 頒帙함으로써 鄉內 또는 道內에 自己들의 좌포를 굳혔던 것이다.

이런 뜻에서 典籍出版의 本據는 書院을 中心한 것보다는 오히려 齋室이나 亭榭를 中心한 것이 월등한 것이라고 본다.

서원에서 문집을 刊行할 때는 鄉內의 의논이 맞고 또 그만큼 學問의 위치를 가진 분이라야 刊行되는 것이지만 齋室이나 亭子를 中心한 個人 또는 門中의 刊行은 그같은 規制는 받지 않았던 것이다. 3,000여종의 전적중 겨우 127件이 書院刊行인데 비해 個人門中 刊行의 文集數가 2,369종으로 거의 10배가 많다는 사실이 그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이같은 현상은 出版文化的 見地에서 볼 때 書院보다는 齋室·樓亭이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齋室이나 亭子の 운영근거인 位士經濟의 바탕에서 文集類刊行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儒敎社會에 있어서 <祖先崇拜>와 <尙賢尊德>의 思想이 書院이라는 형태로 응결되어지던 것이 孝宗 6년이 후부터 書院의 폐해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다가 급기야 고종때는 철폐령까지 내리게 되니 그 힘은 자유롭게 <祖先崇拜>의 뜻을 펼 수 있는 齋室이나 亭子로 옮겨가 書院의 기능이 齋室이나 亭子로 옮겨지게 되었다.

齋室이나 亭子是 ① 敎育의 場으로서 ② 優遊玩賞의

場으로써 ③ 會議의 場으로써 ④ 接賓의 장소로써 ⑤ 慕先의 장소로써의 諸기능은 <祖先崇拜>와 <門閥重視>의 그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文集刊行의 경제적 기반도 바로 齋室 亭子를 근거로 한 位士경제의 바탕에서 진행된 것이니 지금은 嶺南各地方에 수많은 散在한 齋室이나 亭子를 찾으면 으레 거기에는 文集의 冊板이 保管되어 있음은 바로 이것을 실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영남의 出版文化研究는 이 齋室 亭子와의 關係에서 研究될 때 그 眞面目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儒敎의 文化를 나는 樓亭文化라 할 수 있고 이 樓亭文化는 곧 出版文化가 그 핵심인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지연관계로 寺刊系는 생략함)

### 3.

이상에서 영남지방의 出版文化를 刊行전적 3,000종을 중심한 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 地方에 있어서의 出版文化研究는

- (1) 먼저 嶺南刊行 전적의 종합적 정리가 시급하고
- (2) 齋室·亭子の 位士경제와 出版資金문제와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하며
- (3) 木活字 印刷本의 정리와 그 印刷사정과
- (4) 刻手들의 生態와 그 변천이 밝혀져야만 할 것이다.

<상세한 것은 필자의 嶺南地方의 典籍文化研究(油印本) 1970을 참조>

### (6面에서 繼續)

그러므로 우리는 英國의 경우처럼 國立圖書館을 別個의 特殊圖書館으로 認定하고, 다만 國立中央圖書館을 현재의 位置에서 다시 首都의 中央에 交通이 편리한 곳에 移館하고 國家中央圖書館으로서 손색이 없는 建物과 施設을 갖추고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國立中央圖書館長은 外國의 경우처럼 別定職長官級으로서 補하되 8年以上 長期勤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에도 國立的 醫學圖書館과 農水產圖書館, 科學技術圖書館 등 專門圖書館을 별도로 더 設置해야 할 것입니다.

### 5. 圖書館行政機構問題

圖書館行政機構問題는 館界에서 여러가지 意見이 있습니다. 그러나 本人은 현재대로 公共圖書館과 各급 學校圖書館과 大學圖書館에 대한 行政은 文敎部에서 관장하되 文敎部內에 圖書館管理局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公共圖書館과 中高等學校圖書館에 대한 직접적인 管理, 監督은 각 市·道의 敎育委員會

에 委任하되 적어도 圖書館專門家 3인이상이 敎育委員會의 委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大學圖書館의 行政管理는 직접 文敎部圖書館管理局이 관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科學技術分野의 圖書館을 비롯한 學術的專門圖書館은 政府의 關係部處에서 管理監督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美國이나 英國등의 先進國에서처럼 大統領直屬이나 國務總理直屬下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圖書館政策과 國家의 文獻情報管理問題를 항상 研究하고 運營管理의 方向을 강구할 委員會를 두어야 할 것이며, 그 委員會는 文敎部長官을 비롯해서 文敎部 科學技術處 保社部 등의 長官과 國立中央圖書館長, 國立 및 私立의 主要한 綜合大學圖書館長 및 3명 이상의 圖書館專門學者들로 構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